

경주로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자신의 사무실 베란다에서 포즈를 취한 서울마주협회 지대섭 회장. 그는 "마주가 안됐더라면 지금 내 삶이 훨씬 삭막했을 것이다. 내 말이 경주에 나가는 날은 꼭 아들이 올림픽에 라도 출전하는 듯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과천 | 박화용 기자 inphoto@d onga.com 트위터 @seven7sola

"말산업은 고부가가치 녹색사업·新 성장동력"

피플 & 피플

| 지대섭 서울마주협회장

마사회 납세액 3위…매출 19% 세금으로
소유한도·온라인베팅 규제 풀어야 발전
경마월드컵에 국민이 열광하는 날 고대

엘리자베스 2세(영국여왕), 조훈현(바둑기사), 길용우(배우), 윤종용(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웅열(코오롱 회장).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馬主)라는 점이다. 영국의 처칠 경은 "수상이 되기보다 더비경주 출전마의 마주가 되고 싶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영국 사회의 마주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에선 다르다. '경마=도박'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마주를 도박 조력자 정도로 여긴다. 지대섭(71) 서울마주협회 회장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불만이 많다. 경마가 국가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데, 경마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다. 지 회장을 만나 한국경마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경마가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는데.

"말 산업은 고부가가치 녹색사업이다.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은 대부분 고기로만 활용되지만 말은 승마, 경마, 관상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파생산업이 무궁무진하다. 독일의 한 경제연구소는 말 3마리당 일자리 1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말 산업을 활성화하면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경마는 그런 말산업의 핵심이다."

-경마팬이 진정한 애국자라고도 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마사회는 1조465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삼성, 현대차에 이어 납세액 규모 3위다. 그런데 매출 대비로 따지면 마사회만큼 충성스런 기업이 없다. 무려 매출의 19%를 세금으로 냈다. 삼성이 2%, 현대차가 4%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가. 마사회 매출은 경마 고객이 산 마권에서 나온다. 결국 경마고객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가 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인데, 현대사회에서 이 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마를 도박으로 본다.

"로또의 당첨확률은 길 가다 벼락 맞는 것보다 낮다고 한다. 주식은 하루아침에 수백억을 날리기도 하고, 또 그만큼을 벌기도 한다. 하지만 로또와 주식을 도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합법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똑같이 합법사업인 경마에 대해서만 도박 딱지를 붙이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경마장을 소유하고 있고 경마 베팅도 즐긴다. 그렇다고 여왕을 도박꾼이라고 부르면 한국과 영국간의 외교 갈등이 생길 것이다."

-한국경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가재정 기여와 농축산업 지원이라는 경마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시행주체인 마사회는 경마를 지속 발전, 성장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마 얘기만 나오면 주무 장관과 수장이 뒤로 숨었다. 이익만 취하고 해야 할 책무는 다하지 않은 것이다. 경마의 부정적인 국민인식을 바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부임한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혁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경마 선진화의 선결과제는.

"2009년 금지한 온라인 베팅을 이젠 재개해야 한다. 경마 선진국은 마권발매의 60%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막는 바람에 불법도박이 판치게 된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경마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섬 지역 주민 등은 그럴 수 없다. 이건 국민의 행복권 침해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마주 4명이 지난 5월에 마사회를 상대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하라는 소송을 내서,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마권에 붙는 세금을 줄여 고객 환급율을 현재 70%에서 경마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올려야 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마주가 된 이유는.

"1997년 15대 국회의원 시절 마사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마와 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말에 반하게 됐다. 당시 노년엔 무엇을 하나 하는 고민을 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은퇴 후 직업으로 마주를 선택하게 됐다. 국감이 끝나기 바쁘게 그해 11월 마주로 등록했다."

-마(馬)테크, 즉 마주를 하면 얼마나 버나.

"지금까지 상금으로 40억원쯤 벌었다. 액수만 보면 나쁘지 않지만 상금 중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의 몫과 경주마 위탁관리비, 경주마 구입비 등을 빼면 크게 남는 게 없다. 마주들 중 절반 정도만 흑자를 본다."

-마주들의 최대 고민은.

"한국경마는 관(마사회)이 경주마 생산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코리안더비에 출전한 15마리 중 14마리가 마사회 소유 씨수말의 자마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선 민간목장의 세계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구체적인 대안은.

"먼저 현행 10마리인 소유 한도를 늘려야 한다. 이 규모로는 세계적인 경주마를 길러낼 수 없다. 800~1000마리를 소유한 일본의 경주마 생산그룹 같은 곳과 어떻게 경쟁이 되겠나. 한국경마 여건상 무제한 소유가 어렵다면 마주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을 공모방식으로 설립해 30~50마리를 소유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1200억원을 들여 적법하게 추진된 합법사업이 목소리 큰 소수의 반대로 좌초된다면 누가 사업을 하겠나. 찬성과 반대 측이 팩트만 가지고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토론의 중재는 언론이 맡고."

-마주로서의 꿈은

"축구 월드컵에 열광하듯 두바이 경마월드컵에 한국 경주마가 선전하고, 국민들이 열광하는 시대를 꿈꾼다. 물론 내 세대에는 이루기 힘들겠지만,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다.

과천 |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지대섭 서울마주협회장은? 1943년 광주생 / 광주일고-한양대-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15대 국회의원(자민련) /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 대한속기사협회 회장 / (주)광림 회장

미니드롬 추발…'작지만 큰 스릴'

9일 광명스피돔서 스피드롬 종합 이벤트 개최

'작지만 큰 스릴이 온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자전거경기장인 스피드롬에서 쫓고 쫓기는 픽시(고정기어 자전거) 레이스가 펼쳐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세계주니어사이클선수권 개최를 기념해 '스피드롬 종합 이벤트' 행사를 9일 광명스피돔에서 연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스피드롬 추발경기. 두 명의 픽시 레이서가 반대편 트랙에서 동시에 출발, 10바퀴를 도는 동안 상대선수를 추월하면 승리하는 방식이다. 1대1 배틀 레이스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관객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게 된다. 전문 DJ가 현장에서 음악에 맞춰 중계를 해 경기의 재미를 더한다.

사전에 신청한 50여명이 출전해 토너먼트로 경기를 벌이며 푸짐한 상품도 걸려있다. 여기에 참가자들이 실제 벨로드롬에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뮬레이션 경륜 경기와 경륜선수와 1대1 자전거 피팅 대결도 열린다.

스피드롬은 광명스피돔을 10분의1 크기로 축소한 미니 벨로드롬으로 6월 광명스피돔 2층 스피돔 라운지에 설치됐다. 평소에는 경륜 고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륜 관계자는 "미니 벨로드롬 경기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하반기에는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 대규모 스피드롬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주니어사이클대회가 열리는 이번 주 금~일에는 광명경륜이 시행되지 않는다. 대신 경륜팬을 위해 부산, 창원 경륜 경주가 광명스피돔에서 교차 수신된다. 김재학 기자

3경주 접전 편성…⑦ 입상 안정권

석호필의 부산경마 풀어쓰기 〈8일〉

●3경주 1000m 능력축마가 없는 기복마들간의 접전편성이다. ⑦파워볼트는 약편성에 거리를 내렸고, 호흡좋은 송경윤 기수가 재기승해 단독선행에 나서 전개를 이끈다면 입상한 자리는 안정적이다. 후착은 직전 경주에서 달라진 발주능력 보였고 거리를 내려 승리의지 보이는 ⑧나노초, 직전경주 입상으로 상승세 타고 있는 ⑥프리미어퀸, 4주 출전공백 있지만 걸음변화 보인 ④포에버마린을 노려볼만 하다.
추천마권 : ⑦파워볼트-⑧나노초 ⑥프리미어퀸 ④포에버마린

●5경주 1200m 기복마에 신예마가 가세한 약혼전 편성이다. 주행 심사에서 안정된 주행 자세와 여유 있는 걸음 선보인 ③영천에이스는 2억2000만원의 고가마로 인게이트 이점 안고 유현명 기수가 기습선행에 나선다면 입상이 유력하다. 후착은 직전 데뷔전에서 동거리 입상으로 상승세 타고 있는 ②스마일퀸, 송경윤 기수로 교체해 승리의지 보이는 ⑨해피동산, 기수직조로 강훈련 소화한 ⑤퀸샤인을 노리는 경주.
추천마권 : ③영천에이스-②스마일퀸 ⑨해피동산 ⑤퀸샤인

●9경주 1500m 능력축마 없는 현군 기복마들간의 접전편성이다. ③금포리안은 약편성을 만났고 호흡 좋은 최시대 기수 재기승해 축마 감이다. 후착은 게이트 이점으로 선입전개 유리한 ②라이징캡틴, 휴양 다녀온 후 걸음 살아나는 모습 뚜렷한 ⑤익스트림호크, 호흡 좋은 김현중기수로 교체한 ⑥대호여걸을 노리는 경주.
추천마권 : ③금포리안-②라이징캡틴 ⑤익스트림호크 ⑥대호여걸

경마문화 전문위원 ARS 060-701-7013

*세계주니어사이클선수권 개최로 8~10일 광명경륜은 열리지 않습니다. 부산, 창원 경륜 출주표와 결과는 부산공단(spo1.or.kr), 창원공단(domerace.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경마 출마표 | 8일

★최우수 ◎우수 ○양호 △상대 ※도전
출마표는 한국마사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제공:경마문화(유광섭, 석호필, 유준상)

부산 경마

마번	마명	성별	중량	기수	조교사	습성	훈련	광	석	유
제 1경주 (1000M) 국5 마령 일반								발주:13:30		
1	그린미르	수	53	최시대	윤주혁	선행	우수	★	◎	★
2	파워레인저	수	51	김정웅	이상영	선행	양호	◎	★	◎
3	한계질주	거	55	다나카	장세한	추입		※		
4	상승주니어	수	53	문중원	김영관	추입	보통	△	△	
5	우승번쩍	수	53	유현명	백광열	선입	양호			※
6	행운신화	수	53	김어수	강형곤	선행			※	○
7	재간둥이	암	54	설동복	한상복	선입	보통	○	○	△
제 2경주 (1000M) 국5 마령 일반								발주:13:55		
1	강자대로	수	55	송경윤	김남중	선행	보통		◎	○
2	버닝챔프	암	54	유현명	백광열	선입	보통	※		△
3	한계시대	암	54	양영남	장세한	추입				
4	지금처럼	암	53	김도현	방동석	선행	양호	★	○	※
5	배다리대왕	거	55	다나카	조용배	선입	우수	○	△	◎
6	상승물결	거	55	김명신	김길중	선입		△	※	
7	중앙운해	수	55	이성재	오문식	선입	양호	◎	★	★
8	나이스댄서	수	55	김어수	김병학	자유				
제 3경주 (1000M) 혼4 마령 일반								발주:14:20		
1	원일보스	수	53	이성재	오문식	선입				
2	대천왕	수	53	김정웅	이상영	추입			△	
3	연승무패	수	55	김남성	유충열	자유	양호	※	○	※
4	포에버마린	암	54	다나카	라이스	선행	양호	△	※	○
5	시크릿라인	암	53	김도현	유병복	추입				
6	프리미어퀸	암	50	조희원	임동창	선행	보통	○	★	★
7	파워볼트	암	54	송경윤	하무선	선행	보통	★		△
8	나노초	수	54	조성곤	방동석	선입	우수	◎	◎	◎
제 4경주 (1000M) 국5 마령 일반								발주:14:45		
1	마하델타	수	55	김태경	장세한	선입				
2	아테나	암	54	다나카	라이스	선행	보통	○	△	△
3	강한바람	수	53	문중원	강형곤	선행	보통	★	★	◎
4	마하챔프	암	54	정동철	권승주	선행	양호		◎	★
5	오스타	암	50	채상현	윤주혁	선입	양호	※	※	○
6	고속질주	수	53	이성재	양귀선	추입	우수	△		
7	테이크올	수	55	조성곤	백광열	자유			○	※
8	황금마차	수	53	김어수	임동창	추입				
9	위닝넘버	거	53	김정웅	이정표	선입				
10	원일에이스	수	53	최시대	오문식	추입		◎		
제 5경주 (1200M) 국5 마령 일반								발주:15:10		
1	화려한함성	수	53	김도현	강형곤	추입				○
2	스마일퀸	암	53	조성곤	강병은	선행	양호	◎	★	◎
3	영천에이스	수	53	유현명	백광열	선행	우수	★	○	★
4	모닝명작	암	54	김어수	이정표	선입	보통			
5	퀸샤인	암	53	문중원	임동창	추입	보통	※	△	※
6	삼다공주	암	53	최시대	오문식	선행		△	※	
7	블루워터	암	54	김태준	김길중	선입				
8	슈퍼위시	암	54	양영남	조용배	추입				
9	해피동산	수	55	송경윤	강형곤	자유	양호	○	◎	△
제 6경주 (1300M) 국5 마령 일반								발주:15:35		
1	코지파크	수	55	정동철	권승주	추입			○	
2	아름다운청춘	암	56	박금만	울즐리	선입		△		※
3	한마강호	수	55	양영남	이상영	자유				
4	영광의질주	거	55	김명신	김병학	선행				
5	강마에스타	거	55	송경윤	최기홍	추입	양호	◎	◎	○
6	서미트명운	수	53	최시대	김영관	선행	우수	★	★	★
7	삼일스타	수	54	조성곤	백광열	추입	보통			
8	무공훈장	암	55	다나카	문제복	선입	보통	※	※	△
9	퍼펙트레이디	암	54	유현명	김창옥	선행	양호	○	△	◎
제 7경주 (1200M) 국4 마령 일반								발주:16:00		
1	대호명장	수	55	다나카	김창옥	선입			○	◎
2	바람탄	암	54	유현명	임한	선행	양호	◎	◎	○
3	바다영웅	수	56	김도현	강형곤	선입	보통			※
4	기쁨해	수	55	박금만	임한	선행	보통	○		△
5	행운파크	수	55	조창욱	양귀선	선입	양호	※		
6	올트라블루	수	51	조희원	임금만	선행	우수	★	★	★
7	올웨이즈위닝	수	55	조성곤	최기홍	자유		△	△	
8	무한스피드	암	54	김어수	강형곤	추입				
9	베가엑스	암	54	이성재	문제복	선입			※	
제 8경주 (1400M) 국4 별정V-B 일반								발주:16:25		
1	안젤리나	암	53.5	김도현	유병복	선입	양호	◎	◎	◎
2	천지히어로	거	55	이대연	하무선	선행			○	○
3	최고야	수	55.5	김명신	임한	선입	보통		※	※
4	거대한힘	수	54	송경윤	강형곤	자유		※		△
5	파워황제	거	54.5	조성곤	최기홍	선행	보통	○	★	
6	퍼번트스톰	수	56.5	유현명	이상영	선행	우수	★		★
7	베레두스	암	52.5	최시대	방동석	추입				
8	아리송	암	53.5	정동철	안우성	선입	양호	△	△	
제 9경주 (1500M) 국4 별정V-B 일반								발주:16:50		
1	실버트레인	암	54	이성재	조용배	추입				○
2	라이징캡틴	수	52.5	송경윤	김재섭	자유	양호	◎	◎	◎
3	금포리안	암	52.5	최시대	양귀선	선입	우수	★	△	★
4	불패가도	수	55.5	김도현	유병복	선행		※		
5	익스트림호크	암	52.5	김태준	김병학	추입		○		
6	대호여걸	암	50	김현중	김창옥	추입	보통	△	※	※
7	모닝휘파람	거	52	조성곤	이정표	추입	양호		★	
8	결승진출	암	50	박성광	김길중	선행	보통		○	△
제10경주 (1200M) 혼3 마령 일반								발주:17:20		
1	탐나라	암	54	최시대	김병학	선행	양호	○		★
2	위스키리트리트	거	53	채상현	권승주	선행	양호	◎	★	○
3	맨스타	거	57	이대연	하무선	추입	보통	※	◎	△
4	블랙몬스터	수	55	송경윤	김남중	추입			※	
5	신동력	거	57	황종우	강형곤	선입				
6	스타워프	수	56	유현명	임동창	선행	보통	△	○	※
7	우승레이더	거	57	조성곤	민장기	선입	우수	★	△	◎
제11경주 (1400M) 혼3 별정V-B 일반								발주:17:50		
1	스피드메이드	거	54	유현명	김영관	선행	우수	○	★	★
2	축제멜로디	거	55	김도현	유병복	선입	양호	★	○	○
3	성산패총	수	54	이성재	양귀선	선입	보통	※	※	◎
4	고속성장	암	54.5	박성광	민장기	선입				
5	버스그릴리	암	54	양영남	장세한	자유	양호	△	△	△
6	알파아메리칸	수	56	조성곤	최기홍	추입	보통	◎	◎	※
7	닥터스피드	수	50	채상현	권승주	추입				
제12경주 (1800M) 국3 별정V-B 일반								발주:18:35		
1	필꽃	수	57.5	최시대	윤주혁	자유	보통		◎	
2	우루밤바	수	53	조성곤	울즐리	선입				△
3	타깃히트	수	56.5	이성재	임동창	선행				
4	메이저스타	수	55	유현명	민장기	선행	양호	★	★	★
5	팀워크	수	51.5	채상현	이상영	선행				
6	파인드림	수	53	김도현	백광열	추입		○	※	
7	로열임팩트	수	55	송경윤	김병학	추입	우수	◎		◎
8	메간포스	암	53	김어수	이정표	추입	보통		○	
9	선더레이	수	53	양영남	김재섭	선입				
10	천행질주	암	54.5	다나카	김길중	선입	양호	△		○
11	라이징파크	암	53.5	김현중	권승주	선입		※	△	※
제13경주 (1500M) 국2 별정V-B 일반								발주:19:20		
1	창공일로	암	54	김태준	김길중	추입				
2	애즈유원트	암	55.5	유현명	이상영	추입		★		◎
3	천년나래	암	53	송경윤	양귀선	선행	양호	○	★	△
4	최강불패	수	50	조상범	유병복	선행		※		
5	파워볼릿	수	55	김도현	최기홍	자유	보통	△	△	※
6	최고시대	수	55.5	정동철	권승주	선입	보통			
7	영크라운	암	53.5	양영남	백광열	선입	양호		◎	
8	조광	암	54.5	최시대	윤주혁	추입			※	○
9	정글짐	수	53.5	조성곤	울즐리	선행	우수	◎	○	★
제14경주 (2000M) 국1 핸디캡 일반								발주:19:50		
1	켈란	거	52	이성재	민장기	추입	우수		※	※
2	한강의기적	거	53	유현명	문제복	선행	보통	★	◎	★
3	하늘의축복	거	58	최시대	이상영	선입	양호	◎	○	△
4	최고강자	수	52	조성곤	백광열	선행				○
5	사랑드림	수	54.5	다나카	방동석	선입	양호	△	★	◎
6	금호강자	수	52	조창욱	민장기	추입			※	△
7	상승모드	거	52	김영민	백광열	자유	보통	○		